

환경교육의 현황과 정책방향



심무경 | 환경부 민간환경협력과장

1. 머리말

환경교육은 자연과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고 가르치는 윤리교육인 동시에 국가수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대인 사회구성원의 올바른 환경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이다. 환경문제의 본질이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전 분야에 걸쳐 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기에 환경교육 역시 전인교육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고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환경교육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방법으로서 유엔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도 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2003년 8월에 실시한 국민 환경의식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이 가지는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수준은

매우 큰 반면, 환경을 위한 투자나 실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조화를 해소하고 인식과 실천이 통합된 선진형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환경교육의 질적·양적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환경교육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다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환경교육의 점진적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바람을 가지고 기술하고자 한다.

2. 환경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가. 환경교육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환경교육의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자율·재량수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환경이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선택률이 18.9%(중학교 12.9%, 고등학교

27.3%)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학에서의 환경교육은 환경공학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회환경교육의 경우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교육 위주의 환경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홍보강사단 운영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나. 환경교육의 문제점

■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 미흡

환경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교육추진 체계 확립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나,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시책 수립 추진만 일부 규정되어 있을 뿐 아직까지 환경교육을 위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2002년 12월에 국회에서 '환경교육진흥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으나, 관계부처 간 이견 및 국회 임기만료로 2004년 5월에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의 미흡은 관련예산 확보의 어려움, 교육사업의 분산 및 총괄기능의 미비 등을 초래하여 환경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목표달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교육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현재 중·고교 환경교사 중 63.8%를 비전공자가 차지하는 현실이다. 이는 학교교육의 교원 수급정책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비전공자의 환경교육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로 양성되는 환경교육 전문가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 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 부족 등

양질의 교육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은 환경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며, 현재 환경교육 현장

에서는 다양한 교재 및 프로그램이 개발·운영 중에 있으나,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환경교육 지도자가 기 개발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사한 내용이 중복개발되는 등 교재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육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 여건, 환경교육에 대한 일반국민의 상대적 인식 미흡 등이 환경교육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충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환경교육의 획기적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추진기반 마련, 양질의 교육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교육의 장기목표 설정 추진

'UN의 지속가능발전교육 10개년 이념'에 부응하는 환경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 및 사회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장·단기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기초연구 작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동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연말까지는 부처협의 등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로드맵으로 '환경교육 발전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기반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전문가, NGO 등의 참여로 2004년부터 운영중인 '환경교육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환경교육의 방향 설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Ⅲ 특별기고문2

논의하는 협의체로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며, 초등학교의 재량수업 시간을 활용한 환경교육실시, 중·고등학교의 환경 교과목 선택, 환경교육전공 교사 채용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등과의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환경교육 전용 웹 사이트(www. keed.net)를 통한 교육정보 및 자료 제공 활성화를 위해 동 사이트의 내용 및 기능을 전면 보강·개편하고, 동영상 교육자료를 개발·탑재하여 일선 교사가 직접 동 사이트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동 사이트를 환경교육과 관련된 정보·자료의 포털 사이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환경의 날 행사 시 환경교육 활동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보다 활성화하는 동시에 초·중·고·대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환경교육상(가칭)'을 제정하여 환경교육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지속 추진

교육과정 수시 개편(2005~2007)에 대비하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할 환경교육 교과내용 시안 및 학교환경교육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작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동 연구성과물을 새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985년부터 학교환경교육의 모범사례를 발굴·보급

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환경보전시범학교의 운영규모를 전년도 26개교에서 금년도에 32개교로 확대한 바 있으며, 향후 지원규모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범학교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실시중인 방문형 환경교육인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의 운영규모 및 운영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이동차량 운영교사도 확충(차량당 2명→3명)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2006년에 신규로 1대의 이동차량을 더 확보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각종 환경교육교재 개발·보급

유치원·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환경학습노트, 환경일기장 등 읽고 즐기면서 환경소양을 취득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형 교재(그린이아 다이어리 등 8종)와 성인용 환경교육 책자 '함께 가꾸는 푸른세상' 등을 개발하여 각급학교, 군부대,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보급(8만 2,000부)한 바 있으며, 현재 물을 소재로 한 환경일기장과 한·중·일 청소년을 위한 환경만화책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유치원 교사용 유아 교수 자료 3종(3세용, 4세용, 5세용)과 초등학교 재량수업 교재 4종(학생용 2종, 교사용 2종)을 연내에 제작·보급하여 일선학교 교사들의 환경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개발·사용되어지고 있는 환경교육교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으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는 있으나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교재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사회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감성교육 추진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중인 공무원 환경전문교육과 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 등에서 실시중인 민간인 환경전문교육에 대한 교육방식을 주입식보다는 토론이나 워크숍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생들이 참여하고 생각하는 환경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중인 체험환경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생태공원 답사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민간단체 교육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여 청소년 환경교육 활성화방안을 연구·토의하는 등 청소년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며, 학교, 기업,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중인 환경교육·홍보단 전문가에 의한 환경교육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술과 환경을 접목한 문화이벤트 등을 통한 환경소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기업, 언론사 등이 개최하는 국제환경영화제, 환경문화축제, 글짓기, 그림그리기, 환경사진전 등 행사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4. 결론

지난해 6월 제 10회 환경의 날에 대통령께서 경제와 사회·환경이 상생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비전선언의 의미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21세기형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국민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환경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환경교육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능력, 삶의 방식을 공유할 때 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환경교육이 학교, 민간단체 등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교육의 방식이나 교육대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실천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관련 예산 및 환경교육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여 환경교육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고는 삼성지구환경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그린삼성 웹진’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월간지 구독 문의

TEL : (02) 852-2291 (代)